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21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김영신 ☎440-3851 • 담당자 변대훈 ☎440-385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파업 시 인천시민에 카셰어링 할인혜택
- 인천시, 카셰어링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 협약 체결 -
- 카셰어링 주차장 확충, 운전석·보조석 에어백 설치, 친환경 차량 확대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17일 차량공유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 4기(2023~2025) 사업자(쏘카, 그린카, 피플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 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사회운동 형태로 시작된 이후,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매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2013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카셰어링 주차장 5.7배(74개소→425개소), 카셰어링 차량 13.5배(123대→1,665대), 누적 가입자 수 141.9배(3,893인→552,608인), 1일 이용건 수는 55.9배(31건/일→1,733건/일)가 증가했다. 카셰

어링 차량 1대 당 자가용 차량 14.9대 감소 효과와 연간 335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번 4기(2023~2025)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셰어링 주차장 및 차량 등 기반시설 확충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100% 설치 ▲친환경차량 지속적 확충 ▲대중교통 파업 등 비상상황 시 인천시민 대여요금 할인(80% 할인, 협의 후 시행) ▲공익사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확대 시행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유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불편지역 교통수단 제공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친환경자동차 소비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차량 구입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분담으로 원도심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소통 증진, 주차문제 완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카셰어링 서비스에 활발히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카셰어링

쏘카



피플카



그린카

